

새하늘과 새땅이 열리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출현해야 말세

예수는 자기가 살았던 당시를 말세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때가 말세인 줄 알고 말하였으나 말세는 구세주가 출현한 6천 년 대이며 예수의 당대인 4천년 대가 아닙니다.

예수는 마귀가 주장하는 자로서 마귀의 힘으로 병자를 고치는 등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예수가 말했습니다. 예수 스스로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무슨 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은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니 예수는 바로 마귀의 힘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신이 작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마귀신을 받았음은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써 사망의 열매를 거둔 것을 보아 예수는 사망의 나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부만 죽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론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과일을 먹어 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가 하면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안에서 행동해야 구원을 얻는다' 등의 다양한 구원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방법을 인간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인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나 하나님 안에

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주체의식'을 가진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곧 마귀이며 선악과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야고보서1장 15절)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란 욕심이며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림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개체의식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의 뿌리, 즉 원죄이며 선악과입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스스로의 의지로 먹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해와에게 마귀가 침투함으로써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었던 아담과 해와가 인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람은 흙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람이 흙으로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으나 물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살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란 대목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한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하는 암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짝을 맞추어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성경에 이런 거짓말이 들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마귀와는 원수가 되므로 마귀는 인간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신, 마귀를 숙여가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과 사정이 숨겨져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주장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풀려야 풀 수 없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저마다 성경을 다르게 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수많은 종파가 생기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정을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던 것에 연유합니다.

오늘날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파에서는 금요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금요일도 토요일도 아니며 그렇다고 일요일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모두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성경에서 관련되는 구절을 찾아서 짝을 맞추어 볼 때 전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 하시니라(창세기 2장 1절)'의 구절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구절로 보아 하나님께서 옛세 동안 일하신 것은 사실은

육천 년 동안 일한 것이 되므로 일곱째 날 쉬신 것은 육천 년이 지나서 칠천 년 때부터 안식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이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주장은 둘 다 성경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의 계락을 피해서 구세주를 배출하는데 성공하십시오 안식에 들게 하는 때가 안식일인 것입니다. 일요일 하루 쉬고 다음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인간이 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쉬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4천 년과 신약시대 2천 년의 도합 6천 년이 된 시점은 1984년으로써 주역에 의하면 대갑자 년입니다. 대갑자 년이 지나면 7천 년 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사이 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만물도 하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이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화합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죽지 않는 풀과 꽃, 날짐승, 만물이 죽지 않고 살아서 '사망이 이집에 삼킨 바 되느' 천지개벽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세상은 인간의 세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만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며 그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지 인간의 세상은 아니므로 끝 말, 인간 세의 말세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구세주가 출현하여 마귀세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마귀를 섬멸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뒤집어 죽음이 없는 세상, 영원토록 기쁨 속에서 사는 천국을 건설하러 온 자가 바로 구세주

인 것입니다. 구세주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며 천국을 건설하려는 사명을 갖고 권능의 화신으로 출현하여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천지개벽의 역사를 전개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이룬다'는 말은 구세주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세주를 믿고 그의 말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반면에 구세주를 의심하는 자는 영생의 조류를 타지 못하여 끝내는 멸망을 받을 뿐입니다. 구세주가 나왔으므로 반드시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구세주가 왔으므로 영생은 꼭 반드시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따르면 영생의 조류를 타게 되고 이는 노아의 8식구가 방주를 탐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구세주는 영적(靈的)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타고 대홍수에서 구원을 얻은 노아 여덟 식구의 이야기는 구세주가 출현한 오늘날에 될 일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조류를 타고 흐르는 자는 하나님이 되어 날아다니며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살며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세주를 의심하는 자는 결국 멸망을 받을 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었던 인간이 마귀의 계락으로 전락하였으나 구세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으로 되는 것을 '원시 반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어 동방의 땅골 땅모퉁이 한국에서 출현하였으므로 이 모든 성경의 비밀과 하나님의 사정이 날날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새하늘과 새땅을 만드는 개벽의 역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변화

마음의 본성과 심리를 알 때, 변화가 쉬워

맹자(孟子)는 사람의 본성(本性)이 선(善)한데 환경의 영향으로 불선(不善)해진다고 했고, 선(善)한 본성을 잘 유지하고 불선(不善)하지 않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는 가정과 직장, 이웃과 친구 대인관계 등을 들었다.

공자(孔子)는 사람의 성(性)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習)에 의해 사람마다 달라진다고 했다. 즉 성품은 후천적인 습관(習慣)에 의하여 선하게도 악하게도 된다고 보았다. 하여 어려서부터 부단히 좋은 습성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순자(荀子)는 사람의 본성은 이(利)를 좋아하고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본능이 있어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악한 성품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래서 인의(仁義)를 학습하고 실천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 선해진다는 것이다.

묵자(墨子)는 소염론(所染論)에서 인간의 본성은 갖 태어날 적엔 백지와 같아 여기에 후천적으로 선과 악에 물들여지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행동

은 욕구로부터 나오며 이 욕구의 반복에 의해 물들여진다.

기독교적 입장의 인간 본성은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모상이란 외적이 아닌 내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가르치는데, 즉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존귀한 까닭은 하나님의 모상인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용서하고 베풀 때 인간은 선(善)해지고, 반대로 탐욕에 사로잡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심에 빠지면 인간은 악(惡)해진다. 인간 구원의 열쇠는 바로 '사랑'에 있다고 했다.

불교에서의 인간의 본성은 불성(佛性)이었으나, 욕심의 덩어리인 거짓가아(假我)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늙고 병들어 죽는다고 했다. 일평생 거짓가아의 그릇된 욕망을 따라 살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워하도록 되어 있다고 본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이치를 따지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mind), 심리(psycho), 정신(spirit)을 학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들의

<피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사람의 본성은 선하든 악하든 변화될 수 있다

구조를 알아보고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하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이다. 따라서 심리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심리만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인간 전체를 알고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때문에 인간의 내부 심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까지 관심을 갖고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심리학은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과 결과로 인도

결론적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는 어떤 것이라 고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다. 위의 예시처럼 각가지 삶이 난무한다. 다만 이것은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그 삶의 가

치와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 것이 더 인간에게 유익되고 행복하며 의미있는 삶을 살게 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은 순전히 실험과 관찰 연구에 의해 집약된 정보를 통해 정서적 육체적 행복을 쉽게 터득하게 한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만 좋아서 되는 행복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개개인의 믿음과 행위는 자유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삶에 지장을 주는 것이라면 용납이 될 수 없다. 그러한 개인의 선택적 삶은 사회에 대하여 해악과 불편·부당을 조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다. 심리학의 연

구는 어떤 것이 더 자유와 평화를, 그리고 행복한 사회건설에 더 영향을 끼치느냐하는 관점에서 볼 것인가 하는 차이를 확실하게 계량화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확실하게 인지하여 다 같이 올바른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야 이상적인 기능이 될 것이다. "심리학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과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결과가 좋고 유익되는 것을 추구하기 마련

인간의 각기 다른 삶의 추구 행태가 있지만, 마음이 옳다고 여겨지고 좋은 것이라 받아들여질 때 선하고 의로운 행동의 동기 유발과 올바른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듯 인간이 올바른 본성관(本性觀)을 가지고 삶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 지속적인 의지와 노력을 가하게 되면 바람직한 습성과 습관을 얻는다. 올바른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새로운 양질의 삶을 살도록 해준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비뚤어진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습(習)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처럼 한번 먹은 의지가 그리 오래 가진 않는다. 그만큼 마음의 변화를 거쳐 피의 변화, 피의 변화를 거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재생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기의 모든 노력과 집중력을 가하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어느 분야든 위대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만(一萬)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험법칙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세 시간씩 십년이면 일만 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관하여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올바른 습관 길들이기와 피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도 똑같이 그 이치를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게다가 반드시 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를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집중하면 꿈을 꿀 때도 생사의 연장선상에서 24시간 내내, 1년 5개월이 채 안 돼서 변화를 입을 수도 있다. 바로 완전히 변화해서 강한 양심체이자 신·하나님·부처님으로 거듭나게 된다.*